논리적인 불교 가르침 전하다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③ 길게 설하신 가르침 〈디가 니까야〉

부처님께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정법을 가르치며 외도의 그릇된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물리치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경이 바로 〈디가 니까야〉다. 〈디가 니까야〉는 34경은 〈계온품〉, 〈대품〉, 〈빠띠카품〉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부처님이 28개를 설하시고 제자들이 5개, 신(神)이 1개를 설했다. 우리가 잘 아는 〈법망경〉, 〈사문과경〉, 〈대반열반경〉, 〈대념처경〉,〈세기경〉, 〈선생경〉등이 바로 길게 설하는 가르침인 〈디가 니까야〉에 속해 있다.

천한, 고귀한 사람의 차이 〈암밧타경〉

34개의 〈디가 니까야〉에서 추천할 경은 바로 〈암밧타경〉이다. 이 경은 장아함에서는 〈아마주경〉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500여명의 비구들과 꼬살라지방의 바라문 마을에 도착하여 잇차낭길라의 깊은 숲속에 머무셨다. 그 무렵 지혜로운 바라문인 뽁카라사띠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며 동시에 뛰어난 천재인 암밧타를 불렀다.

"얘야, 암밧타야, 이곳에 사문 고타마가 500명의 제자들과 오셨다더라. 모두들 그 분을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라 하니 그 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32가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꼭 보고 오너라."

"스승이시여. 제가 아직 부족하여 32상을 지닌 성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만뜨라를 주마, 이것으로 그의 특질을 파악하거라. 보통 32가지 모습을 지닌 분은 딱 2가지 길을 선택해서 살 수 있다. 왕위를 계승하여 평화로 세계를 통일하는 전륜성왕이거나, 만약 출가한다면 부처님이 되어 세상을 광명으로 빛나게 한다. 너는 보자마자 알게 된다."

암밧타는 스승에게 절하고 500명의 도반들과 부처님이 계신 숲에 이르러 위풍당당 소리치며,

"존자들이여. 지금 그 분 고타마존자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 분을 뵙고자 왔습니다."

비구들은 부처님을 존자라 부르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들을 부처님께 안내 했다. 그런데 참 가관인 것은 암밧타가 부처님이 서시면 앉고, 부처님이 앉으시면 서서 오만불손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부처님이 암밧타에게 물었다.

"그대는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모든 바라문들과 평소에 이렇게 대화하는가? 이것이 자네 스승의 법도인가?"

"아니요! 그럴리가요. 저희 스승님이 앉으시면 저희도 앉고, 스승님이 서서 걸으시면 저희도 따라 걸으며 이야기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고타마존자는 사문이며 석가족이잖습니까? 사문들은 바라문법을 위배해 머리를 깍고 홀아비이며 비루하고 하열해서 어두운 법을 익히고 있고, 또 석가족은 우리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자들이라 그들과 말 할 때는 지금 고타마에게 하듯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진정하고 온 목적을 생각해보라한다. 이 말에 더욱 모욕감을 느낀 암밧타는 카스트제도권 내의 제 1의 신분을 내세워 석가족의 비천함을 거듭 말하자, 일촉즉발 500대 500의 싸움이 일어날 순간이었다. 이 때 부처님은 암밧타를 진정시키며 참으로 존귀한 사람, 진정한 바라문이 되려면 먼저 도덕성(戒)과 고귀한 인품(定), 높은 식견(慧)을 갖춰야 한다. 만약 옛 바라문선조들의 이름아래 숨어 직업바라문이 되는 경우는 최악의 천한 사람이 된다고 엄하게 꾸짖는다.

"암밧타여, 혈통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얼마나 지혜와 실천을 구족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점을 잊지 말아라."

암밧타는 돌아와 부처님을 만난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뽁카라사띠는 벌떡 일어나 32상을 지닌 분을 함부로 대했다며 암밧타를 발로 차버렸다. 그리고 당장 부처님을 뵈러가 법을 청하자 부처님은 32상을 모두 드러내어 보여주셨다. 그는 부처님께 사성제의 가르침을 듣고 법안(法眼)을 성취했다.

〈서울 반야사 주지〉

마음 밖서 구할 것 없는 도리 깨닫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② 선지식과의 만남 2

부끄럽지만 변하기 전의 내 모습을 먼저 말씀드려보자. 나는 외부의 자극에 지극히 민감한 감수성이 강한 청년이었기에, 정(情)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으며, 좋아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였고, 좋아하는 서책도 매우 좋아하였다. 좋은 인상의 사람에게는 쉽게 빠져들고, 괜찮다는 서책에도 쉽게 빠져들고, 그럴듯한 진리라면 쉽게 그리고 깊이 빠져들었다. 책 내용에 빠져 들어가는 한은 그 책 내용은 엄연한 사실이요, 반드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였다.

조계사에 가서 참선하시는 스님들의 법문을 듣기도 하여, 선가(禪家)에서 말하는 심외무법(心外無法, 마음 밖에서 모든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이라는 말씀에 일부 공감하기도 하였지만 마음밖에 어떤 세계도 엄연히 존재하고 또 부처님의 세계도 반드시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처럼 어린시절의 나는 증애심(憎愛心), 간택심(揀擇心) 즉 사람과 사물에 잘 집착하여 사랑, 미움으로 이름을 짓고 갈등하는 마음이 어린 시절 제 마음의 주류였다 할 것인데, 이런 사랑과 미움의 갈등의 마음은 해결할 그 무엇을 찾으려 하였는데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찾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불교를 만나자마자 나는 깊이 빠져 들어갔다.

부처님 가르침에 심취해 경전을 부지런히 읽고 수행도 하느라 하며 눈 밝은 스승이 계시다면 부지런히 찾으려던 나는 친구의 소개로 당시 동국대 총장을 사임하시고 경기도 부천에 칩거하시던 백성욱 박사를 만나게 되었다.

한국인 최초로 독일에서 철학박사를 얻은 천재, 전생을 훤히 꿰뚫어 보는 숙명통(宿命通)을 하셨다는 이인(異人). 다른 사람의 마음도 훤히 다 아는 타심통(他心通)을 하셨다는 도사, 이것이 백 박사를 따라다니는 별칭이었다. 어떤 사람은 이 분을 시대의 인물이요, 당대 대선지식이라 말하기도 하였다.

백 박사를 처음 만나 법문을 들으면서 완전히 법문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명불허전(名不虛傳)! 백 박사의 법문은 지금까지 큰스님께 듣던 법문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법문을 들으며 〈육조단경〉의 다음 구절이 생각나게 하였다.

혜능 대사가 5조 홍인 대사로부터 법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뒤, 이제는 세상에 법을 펼 때였다. 광주 법성사에 이르니 거기는 인종법사가 있어 열반경을 강의하는 중이었다. 그 때 마침 바람이 불어와서 깃폭이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한 중은 "바람이 움직인다"하고 한 중은 "깃폭이 움직인다"고 하여 서로 다투고 있었다. 혜능 대사가 듣다가 "바람의 움직임도 아니며, 깃폭의 움직임도 아니고 당신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일세" 하니 온 대중이 놀랐다. 이때 인종 법사하는 말이 "당신의 법문은 황금과 같고 나의 법문은 기왓장 같소"였다.

나는 백박사님의 처음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법문은 황금과 같고"라고 한 인종 법사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신 혜능 대사처럼, 백 박사의 법문 역시 '무엇이든 마음 속에서 다 얻을 수 있다' '출세건 행복이건 진리건 부귀영화건 모든 것은 마음속에 다 구족되어 있으니 마음밖에 무엇을 찾아 헤매지 말라' 와 같이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말했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 때문일까. 백 박사 법문은 마치 인종법사가 말하는 황금 같은 법문이라 여겨진 것이었다.

이 일체유심조 진리에 입각한 법문은 마음 밖에서 모든 것을 다 찾고 있었던 나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언제인가 조계사 법회에서 들었던 심외무법(心外無法)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며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 정말 실감나게 된 것이었다. 마음 밖에서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고 다 마음속에 구족되어있다는 법문, 이것은 지금까지 경전속에서 듣지 못하였던 시원한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 생각된 것이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대의심, 근원에 대한 '끝없는 물음표'

대의심(大疑心)은 큰 의심이란 말인데, 이는 화두를 철저하게 의심하는 것을 말한다.

무문 혜개선사는 "삼백육십개의 골절과 팔만사천개의 털구멍으로 온 몸을 다 들어 의심하라"고 말했다. 화두를 일단 들면 철저히 의심하라는 메시지다. 화두로 간절한 의심, 근원적 의심을 마음속에 품고 삶을 관하고 살피며, 부처님 가르침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남들보다 의미있고 값지게 사는 길이다. 우리가 화두를 드는 순간, 간절한 의심을 일으키는 순간, 내가 본래 그 자리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생각을 늘 해보자. 화두를 들고 거기에 간절한 의심을 품고 수행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 본연의 삶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산대사 송(頌)에 "만의도취일의단(萬疑都就一疑團) 의래의거의자간(疑來疑去疑自看) 수시나룡타봉수(須是拏龍打鳳手) 일권권도철성관(一拳拳倒鐵城關)"는 말이 있다. 의미를 해석하면 "만가지 의심을 다 몰아 한 의단으로 나아가라. 의심해 오고 의심해 가서 의심하는 자신을 보아라. 모름지기 용을 잡고 봉황을 잡는 용맹한 사람이라야 한주먹으로 처서 쇠로된 성벽 관문을 부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다. 이렇듯 자신을 비춰보는 금강보검(金剛寶劍)인 신무기가 바로 '이 뭣고'인 것이다.

오매불망(寤寐不忘) 의심을 이어가는 데는 처소(處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부승상포단(不僧上蒲團)이라, 한번도 방석위에 앉지 않고, 지시종조지모(只是從朝至暮)하며, 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보불리(步步不離)라, 걸음걸음마다 화두를 놓치지 않고, 심심무간(心心無間)하여, 마음가운데 간단이 없어서, 여시경급삼년(如是經及三年) 증무일념해태심(曾無一念懈怠心)하듯이 삼년이 흘렀는데 일찍이 한 생각도 게으른 생각이 없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성불할 수 있다.

> "삼백육십개의 골절과 팔만사천개의 털구멍으로 온 몸을 다 들어 철저히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꼭 포단에만 앉아서 만이 아니고 이렇게 포행하면서 '이 뭣고' 의심하고 또 의심해 가면 반드시 깨달음을 기약하게 된다. '이 뭣고'는 집에서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농사 짓고, 직장서 근무 하면서 눈을 감으나 앉으나 서나 누워서도 해보자. 차를 타고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항상 '이 뭣고'가 끊어지지 않아 쌀 한톨이 모여 한홉이 또 모여 한말이 되듯이 차츰 응집력이 쌓이게 되면 마음이 불안에서 벗어나 평온해 진다. 이렇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서 벗어남은 물론 찰나간 생사(生死)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또한 타성일편(打成一片)이라, 분별심 작용이 완전히 멈춰져 색상경계의 실체감이 사라져 버리면, 그 색상 경계가 실상(實相)이 아니라 본연청정(本然淸淨)의 상(相) 즉 비상(非相)임을 알게 되며, 내면의 성품 또한 비상이어서, 경계가 없이 툭 트여 통해 있음을 보게된다. 즉 내면의 성품과 바깥 색상 경계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며, 삼라만상이 하나의 마음 즉 일체유심(一切唯心)을 깨닫게 되며, 천만(千萬) 가지 생각을 하나에 다 모아 버리는 것을 전제한 현전일념(現前一念)인 '이 뭣고'가 끊이지 않아야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 뭣고'가 내몸과 하나 되어 의심 덩어리만 홀로 빛나는 것을 의단독로(疑團獨露)라 한다. 생각이 빠져나갈 틈이 전혀 없는 순간, 앞뒤로 꽉막혀 오도가도 못할 때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뚫고 나가는 것이다. 마치 코뿔소 뿌리 저 안쪽에 있는 먹이를 찾아 들어간 쥐가 뒤돌아 나올 수가 없는 경지서 뚫고 나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을 말한다.

궁즉통(窮卽通)이라는 말처럼 인생사는 궁하면 통한다. 막다른 골목에 다달았을 때 화두가 타파 되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입종안내

1 입종 구비 서류 (승가원 비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 1부
-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진 ····· 1매
- □ 주민등록 등본 ····· 1통
- □ 반명함판 사진 ····· 3매
- □ 사찰 법당 내 · 외부 사진 ····· 각1매
- □ 귀 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 1매

2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 □ 사찰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문의 :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출강 및 통신 2018학년도 제2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탁월한 불교교육과 정명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정통한 법사교육으로 27년의 전통과 신뢰로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습니다.

①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8년 2월 28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